

변화된 평범한 일상

최지율

학생들은 평범하게 학교에 등교하고, 어른들은 평범하게 일터로 향하는, 평범하기 짝이 없었을 오늘날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80도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필두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어영부영 지나가더니 벌써 사태가 반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끝날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도 자주 일어났기에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본래 등교해야 했을 3월에서 4달이 지난 6월이 돼서야 등교를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본 시간도 전무하여 애를 먹었으며 학기 시작 전 맞춰놓은 교복까지 사이즈가 안 맞는 등 황당한 일도 있었다. 또한, 소중한 가족까지 만나기 조심스러웠던 터라, 직접 뵈어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이 슬펐다. 그나마 이 글을 쓰는 현재는 많이 안정되었으나,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두 자릿수 후반을 기록하는 등 방심하기엔 아직 많이 이른다. 한편,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금도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나 바뀔 예정이다. 이 사태가 일어난 2월부터 시작하여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 소독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물론, 밖에서는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지역 간 이동에 위험이 생기는 등 자유로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유이다. 안 그래도 나는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경우(학교, 학원 등)를 제외하면 모든 날에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필수로 외출해야 할 경우들까지 일시적으로 사

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극심했던 때에는 건강관리가 더욱더 소홀해졌다. 언젠가는 매일매일 집에 있으니 답답하고 무료함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가끔 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친구와 밖에 나가 놀기도 하며 스트레스도 풀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으니 정말 답답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뀐 개념은 따로 있다. 아니, 이것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 생겨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은 학생들은 학교라는 밀집되고 접촉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했다. 바로 “비대면 활동”이다.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으며 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를 비롯한 학생들의 생활이 크게 뒤바뀐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수의 인원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와 같은 기능을 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대표적으로 화상 회의 전용 앱인 ZOOM이 있다.)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듣거나, 수업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 수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혹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줌으로써 굳이 실시간으로 마주 보지 않고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사이트를 이용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있다. 등교를 6월이 돼서야 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진도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했으나, 다행히 이 방법을 통해 계속 수업을 진행했기에 그런 일은 없었다. 또한,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시 복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선생님의 말씀이나 TV를 통해 틀어주신 영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잠깐 단청을 피우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불상사가 가끔 생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은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통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확연히 낮지만 위의 장점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한번 대충 보고 복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 또한 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싶었는데, 온라인 비대면 원격 수업이라는 신개념 방법을 도입하여 염려가 됐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정말 잘 대처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코로나는 앞서 상술했듯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며 이질감이 크게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사태가 1년도 넘지 않았는데도 10개월 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벌써 바뀐 것이다. 각종 매체에서 코로나 사태 종결 후 인간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바뀔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는 지금으로서는 미래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을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흐른 미래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역시 평범한 일상의 하나가 되어 우리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혹시 내년 이맘때쯤 이 백일장을 또 참가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희망을 가져본다.